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 임 여 옥*

2006년은 우리나라 도서관계 역사상 잊지 못할 해임에 틀림이 없다. 개인적으로도 2006년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2006서울WLIC ; 제72차 IFLA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한 해였다. 이 글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 전후 사정 이야기, 대회 기간 중 IFLA의 여러 분과들의 활동을 보고 느낀 점 그리고 현장 사서로서 우리 도서관의 미래를 생각해본 것에 대한 것이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처음 서울로 유치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이야기 되었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왔다. 특히, 2005년 10월 일산에서 개최되었던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에도 사서들에게 많이 알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 뜻깊은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보겠다는 결심도 그 때 했었다.

2006년 2월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났다.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어학 실력이 썩 좋진 않아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나서 교육 날짜를 마음 속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7월 14일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있었고, 8월 14일에 2차 교육이 있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행사를 주관하는 Congrex(네덜란드 소재)

측에서 직원이 와서 교육을 하였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도 받았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커뮤니티인 싸이월드의 사이트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 주고 자원봉사자들끼리 정보교류도 할 수 있어 좋았다. 이 싸이월드에서 교육 후 행사 개막식 때 상영될 동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나도 지원하였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막식 때 보여질 행사 주제를 부르는 자연스런 모습을 찍었다.

8월 17일에는 행사장인 COEX에서 교육이 있어 바쁘게 참석하여, 행사장을 조금 익혔다. 내가 배정받은 일은 Room Attendant로 각 분과별로 준비하는 세미나룸에 가서 발표자를 돕고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일이었다.

자원봉사자는 약 200여명이었고, 통역지원, 행사장 안내, 등록데스크 지원, 도서관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일들을 돕는 것이었다. 8월 20일(일요일)개막식부터 8월 24일(목요일) 폐막식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8월 20일에는 아침 7시 30분경에 행사장 자원봉사자 대기실로 출근하였다. 개막식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참석자들 체크하는 일을 배정받았으나, 정작 나의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아 '얼마나 기다려왔던 행사인

* 종로도서관 사서, engprodo@naver.com

데 개막식을 못보다니'라는 생각과 함께 아득해졌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신분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이상복 교수께 말씀드렸더니, '눈물겁네요'라고 하셔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한바탕 웃었다.

비표 확인 일을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참석자들을 안내하였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국의 도서관인들도 반갑게 맞이하였고, 외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방향 안내도 하였다. 주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대회장으로 오는 사람들을 등록 데스크로 안내하였다. 주차증 확인, 초대장을 가지고 온 귀빈에 대한 안내도 하였다. 특히, 외국인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자를 보는 눈이 따뜻하고 격려하는 듯도 하고 믿음의 눈짓을 하여 기분이 좋았다.

10시 45분이 되자 자원봉사자들도 대회장에 입장하게 되었다. Alex Byrne IFLA 회장, 신기남 2006 서울WLIC조직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권양숙 대통령 영부인, 김대중 前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2차교육 때 찍었던 동영상을 보며 대회 주제가도 들었다. 'Lean me on to my journey, In times of need, In times of hunger...'를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불렀다. 2006서울WLIC 소개 동영상을 보았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이나 무구정광다라니경 등이 나오면서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사용했던 인쇄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참석자들도 놀라는 눈치였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화면에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오랜 역사를 갖는 IFLA 대회가 이제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고 눈물이 핑 돌았다.

8월 21일에는 7시 30분에 출근하여서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Reading' 세미나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연사는 모두 5명이었고,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사람으로 송영숙 선생이었다. 5번째 연사는 뒤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담긴 파일을 맡겨 두고 갔다고 연락

이 왔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질문과 답변을 하였고, 이를 도왔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발표자에게 한 참석자가 '스토리텔링은 목소리의 톤이나 말할 때의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다른 분과(Division)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자료실 업무도 전문화가 되어야 겠고 외부의 누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서들 스스로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전문화하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였고, 이러한 사서들의 전문화에 크나큰 지원군이 생겨 다행이다.

발표가 계속될수록 참석자들은 점점 늘어나, 좌석을 거의 다 채웠다. 세 번째 프랑스인의 발표가 있을 때는 영어권 참석자들도 언어 때문에 불만이었고, 우리나라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영어로 된 자료라도 달라고 했다. 어린이청소년분과 위원장으로부터 자료는 받았으나, 복사는 인터넷카페 부스쪽에 있고 유료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열리게 될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하려면, 미리 개인별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석하고자 하는 분과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겠다. 한국에서 이번 대회가 열려 내국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참석했으나, 언어 장벽과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자료 집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네 번째 일본인 발표자가 발표하기 전에 한국인 발표자의 이벤트가 열렸다. 분과위원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호랑이와 꽃감' 공연이 있었고,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8월 23일 오전에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분과위원회에 참석했다. 유럽 북구의 템페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우리 도서관 이경희 자료봉사과장이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디지털문해'

의 대상을 원래 50세에서 60세로 잡고 템페라시에서 교육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서관이 시의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서관으로 맡겨졌고 이 사업이 시의 재정 지원으로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발표자의 말대로 도서관 사서들은 주변 행정기관의 동향도 읽고 있어야 이러한 요구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분과위원회 참석 후 필자〉

8월 24일에는 폐막식이 있었다. IFLA 회장을 비롯한 몇 분의 말씀이 있었고, 행사 기간동안 촬영해 두었던 참석자들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화관광부장관초청만찬, 서울시장초청만찬 등 문화행사와 도서관 방문의 모습도 상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세미나 등 각종 학술대회를 보면 마지막 폐막까지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만 남는 관례와 비교가 되었다. 폐막식에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 같았다. 참석자들의 이번 대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내년 개최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직위원장의 인사와 공연이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계자들이 나와서 광고영상을 보여 주었고, 음악도 연주하여서 흥을 더해 주었다. 대회 각 부문의 수상자 발표와 2009년 개최지(이탈리아 밀란)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국제대회는 역시 절도가 있고, 내용도 알차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또 행사 진



〈2006서울WLIC 자원봉사 후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이 민주적으로 이뤄짐을 볼 수 있었다. 끝까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정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행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국제적 행사이건 국내 행사이건 큰 행사이건 작은 행사이건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개최하길 기대해 본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로서 요즘 도서관을 보면, 이용자와 많이 친근해졌고 정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198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한 사람으로 이번 대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참석했던 행사들에 대한 일부 느낌을 전하고 대회 전체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인 자료를 우리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의 큰 행사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도서관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찾고 고양시키는 길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길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보다 친근하고 항상 함께 하는 시설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